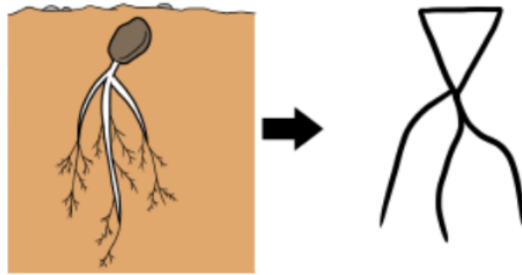


7(2)
-
21

상형문자 ㉠



不

아닐 불

不자는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不자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丂 그린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不자는 '부'나 '불' 두 가지 발음이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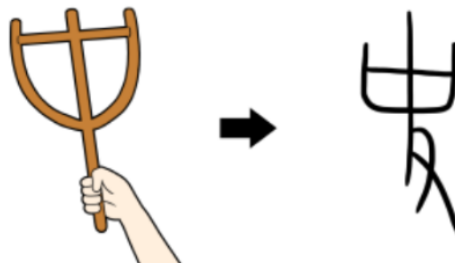
소전



해서

7(2)
-
22

상형문자 ㉠



事

일 사

事자는 '일'이나 '직업', '사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이 등장했던 시기 使(부릴 사)자와 史(역사 사)자, 事(일 사)자, 吏(관리 리)자는 모두 같은 글자였다. 事자는 그중에서도 정부 관료인 '사관'을 뜻했다. 사관은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事자는 제를 지내고 점을 치는 주술 도구를 손에 쥔 모습으로 그려졌다. 후에 글자가 분화되면서 事자는 '일'이나 '직업'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정의하기로는 史자는 '일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吏자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事자는 '직책'으로 분화되었다고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使(부릴 사)자의 설명을 참고 바란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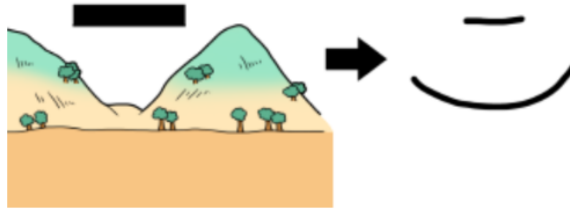
소전



해서

7(2)
-
23

지사문자 ①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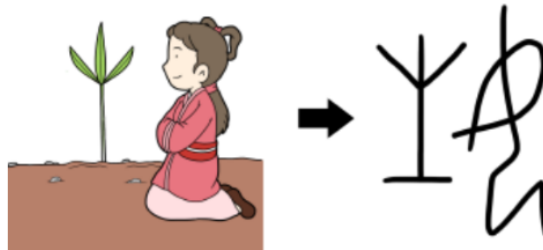
윗 상

上자는 '위'나 '앞', '이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上자는 하늘을 뜻하기 위해 만든 지사문자(指事文字)이다. 上자의 갑골문을 보면 마치 二(두 이)자와 같은 ㄷ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다만 아랫부분은 오목하게 윗부분은 짧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다. 上자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위'나 '윗'을 뜻하고 있다. 다만 소전에서는 二자와의 혼동을 피하고자 윗부분의 획을 세운 형태로 바꾸게 되면서 지금의 上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24

회의문자 ①



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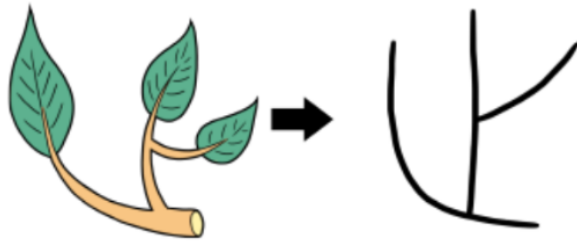
성(성씨)
성

姓자는 '성씨'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姓자는 女(여자 여)자와 生(날 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生자는 초목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을 '날 것'이나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다. 生자와 女자로 이루어진 姓자는 '태어남(生)은 곧 여자(女)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뜻이다. 고대 인류가 모계사회를 근간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모계사회에서는 여자만이 姓을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의 성은 딸아이에게 대물림됐다. 이는 생식 능력이 있던 여성이 신성시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낳은 글자가 바로 姓자이다.

갑골문	소전	해서

7(2)
-
25

상형문자 ①



世

인간 세

世자는 '일생'이나 '생애', '세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世자는 나뭇가지와 이파리를 함께 그린 것이다.世자의 금문을 보면 나뭇가지에서 뿔어 나온 새순이 卍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世자의 본래 의미는 '나뭇잎'이었다. 나무는 일 년에 한 번씩 싹을 틔운다. 나뭇잎이 새로 돋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나뭇잎이 지는 것을 보며 한해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世자는 후에 사람의 생애에 비유해 '생애'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世자가 가차(假借)되면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卍(풀 초)자와 木(나무 목)자를 더한 葉(잎 엽)자가 '나뭇잎'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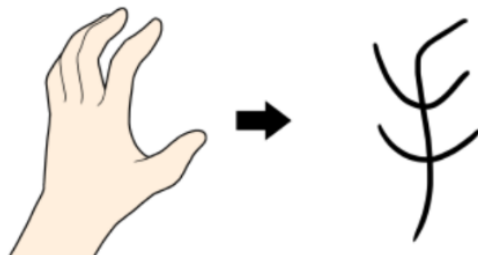
소전



해서

7(2)
-
26

상형문자 ①



手

손 수

手자는 '손'이나 '재주', '수단', '방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手자는 사람의 손을 그린 것이다. 본래 '손'을 뜻하는 글자로는 又(또 우)자가 있었지만, 후에 뜻이 바뀌면서 금문에서는手자가 '손'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手자는 사람의 손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손의 기능이나 역할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때로는 재주나 솜씨, 수단 등과 같이 손과 관련된 기술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手자는 운전수(運轉手)나 가수(歌手)와 같이 특별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들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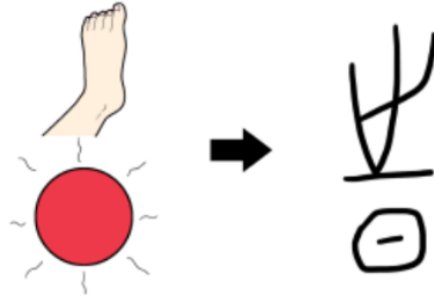
소전



해서

7(2)
-
27

회의문자 ①



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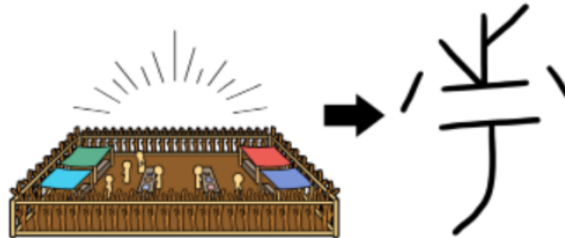
때 시

時자는 '때'나 '기한'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時자는 日(해 일)자와 寺(절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日자와 止(그칠 지)자만이 𠂔 결합해 있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후에 소전에서는 寺자가 발음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時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時자는 '때'나 '시간'과 관련된 글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회'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28

회의문자 ①



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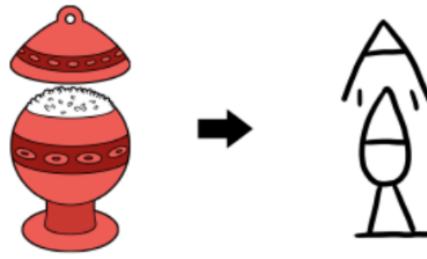
저자 시

市자는 '시장'이나 '저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市자는 𠂔(돼지해머리 두)자와 市(수건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市자가 상점에 걸린 간판을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문에 나온 市자를 보면 본래는 𠂔(어조사 혜)자와 止(발 지)자가 결합한 𠂔 모습이었다. 止자가 '발'을 그린 것이고 𠂔자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니 금문에서의 市자는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금의 市자는 해서체에서 모양이 크게 바뀌어 만들어진 것이다.

금문	소전	해서

7(2)
-
29

상형문자 ①



食

밥/먹을
식

食자는 '밥'이나 '음식', '먹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食자는 음식을 담는 식기를 그린 것이 다. 갑골문에 나온 食자를 보면 음식을 담는 식기와 뚜껑이 함께 ^飠 그려져 있었다. 食자는 이렇게 음식을 담는 그릇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밥'이나 '음식', '먹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食자가 부수로 쓰일 때도 대부분이 '음식'이나 먹는 동작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참고로 食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모양이 바뀌어 飠 자나 𩚑 자로 표기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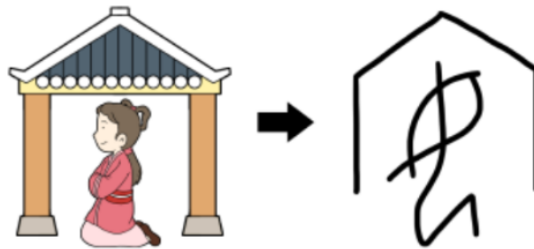
소전



해서

7(2)
-
30

회의문자 ①



安

편안 안

安자는 '편안하다'나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安자는 宀(집 면)자와 女(여자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安자도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다. 安자는 여자가 집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편안하다'나 '안정적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